

전남 귀촌인 증가세 더더...귀농·귀어는 큰 폭 상승

한국은행 조사연구보고서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귀어인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에 비해 귀촌인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대비 지난해 귀농, 귀어인은 각각 23.7%, 98.0%로 크게 늘었으나 귀촌인은 6.1%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만 명 정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귀어인 1.1%, 귀농인 7.4%, 귀촌인은 91.5%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낮은 증가세에 비해 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주·목포 등 도시 인근 귀촌 집중 지방소멸·고령화 완화 경제 활력 “정주여건 개선...정착 도모 필요”

전남의 귀농·귀촌인 수는 전국 귀농·귀촌인 수의 9.0%를 차지하는 등 경기, 경북, 충남, 경남에 이어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13년 대비 7.8%를 달성하며 전국 평균인 22.0%보다는 낮은 수치에 그쳤다. 이는 전남의 귀농·귀어인은 전국 평균 증가세보다 높았으나, 비중이 높은 귀촌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인이 가장 많이 향환 곳은 농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흥, 무안, 순천, 보성, 나주 순이었으며, 귀촌인이 많은 지역은 무안, 순천, 광양, 담양, 화순, 여수, 나주 순으로 주로 광주나 목포 인근 지역 및 순천이나 여수 등 도시 근방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귀농·귀촌 전 거주지 또한 광주와 전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 기준 귀어인의 56.7%, 귀촌인의 69.1%가 광주·전남에서 터전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인 비율은 2013년 51.4%를 기록한데 비해 2021년 43.2%로 하락했으며, 귀어가 43.3%로 가장 높은 외지인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귀농·귀어인의 경우 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귀촌인은 30대 이하의

전남 귀농·귀어·귀촌인 수 (자료:통계청)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합계
2013	2,791	252	40,164	43,207
2014	2,882	406	44,262	47,550
2015	3,071	500	39,145	42,716
2016	2,999	502	35,602	39,103
2017	2,909	418	37,698	41,025
2018	2,963	449	37,349	40,761
2019	2,784	487	36,048	39,319
2020	3,108	387	38,366	41,861
2021	3,453	499	42,611	46,563

청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귀촌인의 경우 청년층 비중은 2013년 50.3%에서 지

난해 43.6%로 감소했으나, 60대는 동기간 7.9%에서 13.6%로 그 비중이 상승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지방소멸 위험 및 고령화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귀농·귀촌 가구의 지속적 유입과 갈수록 낮아지는 청년 귀촌인 증가세를 높이기 위해 전남 귀농·귀촌 특성을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미주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과장은 “귀농·귀촌 관련 통계 확대, 귀농인의 농가소득 증대 방안 모색, 일자리 확충과 인프라 개선 등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협, 삼계탕 나눔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보성축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는 18일 보성축협 축산물명품관에서 ‘건강 더하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목우촌 생생 삼계탕을 보성지역아동센터, 마르테 재활주간보호센터 등 6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호남중기협동조합 ESG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호남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ESG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행사 1부에는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ESG학회 문성후 부회장이 ▲ESG의 개념 및 확산배경 ▲ESG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을 주제로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2부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의 주제로 제조·서비스·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호남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30여명과 ESG 및 산업

안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ESG를 기반으로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동조합에 ESG 등 최신 경영이슈를 우선적으로 전파하고 개별 중소기업까지 ESG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기아, ‘The 2023 K5’ 출시

고급 편의사양 기본 적용 프리미엄 모델 ‘블랙 핏’

기아는 19일부터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K5(이하 K5)’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K5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가니쉬를 적용해 외장에 고급감을 더하고 기존에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고급 편의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고급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 뒷좌석 측면 수동 선택튼을 기본 적용하고,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기존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 노블레스

이상 고급 트림에 전방레이더를 기본 탑재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전방 충돌방지 보조(사이클리스트/교차로 대향차) 기능을 추가하는 등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한층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최상위 스페셜 모델 ‘블랙 핏’도 추가로 출시했다.

블랙 핏 모델은 ▲18인치 블랙 포인트 전면 가공 휠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를 탑재해 외장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내장에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스웨이드 A/B 필라 ▲헤어라인 패턴 가니쉬를 적용하는 등 고객들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취향을 반영했다.

기아 관계자는 “K5는 혁신적인 외관과 세련되고 정제된 내장으로 출시 초기부터 꾸준히 사랑받아 온 모델”이라며 “고객 선호도 기반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The 2023 K5’에 더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더욱 프리미엄해진 최상위 스페셜 모델을 통해 중형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The 2023 K5’
/기아 제공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L.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